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보업계, 날씨 파생상품 인기

□ 일본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날씨 파생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됨.

-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날씨 파생상품은 기온이나 강수량, 강설량 등의 지표가 최초 약정한 수치를 넘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상품으로, 기후 변화에 의해 고객수가 좌우되는 레저시설이나 행락지 관련 업체들이 주요 고객임.
- 날씨 파생상품은 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불되는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달리 일정한 기상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손해심사 없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음.
- 손해보험재팬과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최근 날씨 파생상품과 관련된 문의나 견적 신청이 작년동기대비 30% 증가했으며, 일본고아손보의 경우 무려 2배가 증가함.
- 이에 대해 업계는 올해 6~7월의 집중호우와 9월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레저시설 및 행락지 관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농업 관계자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□ 그러나 최근에 찾아진 이상 기후 현상이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있어서 신사업 기회인 동시에 이로 인한 예상을 웃도는 보험금 지급이 경영압박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- 올해 7~8월에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냈던 큐슈·야마구치 지역의 수해와 태풍 9호로 상위 손해보험 6개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현재까지 약 100억엔에 달하고 있음
- 이 액수는 작년에 6개 주요 보험회사 중 액수를 공개한 5개사의 지급 보험금이 24~64억엔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.
- 전통적으로 재해가 많은 9월을 앞두고 각 사들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경영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임.

(FujiSankei Business I, 8/29)